스포츠동아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sportsdonga.com 10판

‘돌아온 승부사’ 강경남, 카이도 남자오픈서 4년만에 우승

▶10면

남여 프로골프 대회가 분리된 이후 처음으로 같은 골프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우승에 많은 의미가 있는 남녀 챔피언이 탄생했다. 강경남은 16일 경상남도 사천 서경타니골프장 청룡 현무코스(파71·6694야드)에서 열린 KPGA 카이도 시리즈 5차 진주저축은행 카이도 남자오픈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로 정상에 오르며 개인 통산 10승을 달성했다. 박신영은 같은 골프장 주작코스(파72·6414야드)에서 진행된 KLPGA투어 카이도 여자오픈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강경남

송중기 소지섭

올스타 왕별 최정 MVP 두개 더!

〈정규시즌·한국시리즈〉

사상 첫 MVP 3관왕 위대한 도전

전반기 31개의 홈런을 때린 최정은 SK 돌풍의 주역이자 강력한 홈런왕 그리고 페넌트레이스 최우수선수(MVP) 후보다. 15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에서 홈런 2방을 폭발하며 ‘미스터 올스타’에 선정됐다. 스포츠동아DB

올스타전 홈런 2방…SK 선수 첫 MVP
전반기 홈런 31…올시즌 50홈런 페이스
팀 한국시리즈 갈땐 역사적 기록 탄생

1982년 출범한 한국프로야구에선 올해까지 총 36번의 올스타전이 펼쳐졌다. 해마다 열린 별들의 잔치에서 최우수선수(MVP)는 총 33명이 배출됐다. MVP 수상자는 수많은 스타들 속에서 단 한명만 탄생하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김용희(1982·1984), 유지현(1997·1999), 이대호(2005·2008)만이 ‘미스터 올스타’ 타이틀을 두 번씩 차지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리고 올해 주인공은 이번에도 새로운 인물이었다.

15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올스타전 MVP는 최정(30·SK)이었다. SK 선수 최초로 올스타전 MVP 트로피를 거머쥐며 구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2008년 한국시리즈 MVP 이후 개인 생애 두 번째 MVP 타이틀을 획득했다. 그는 이날 드림올스타 3번 겸 3루수로 선발 출장해 ‘소년장사’라는 별명답게 1회와 3회에 홈런 두 방을 잇달아 터뜨렸다. MVP는 일찌감치 정해졌다. 3타수 2안타 3타점 3득점의 맹활약으로 기자단 투표 53표 중 40표를 얻어 별중의 별로 우뚝 올라섰다. 경기 초반에 터진 멀티홈런의 인상은 그만큼 강렬했다.

‘홈런’은 올 시즌 최정을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다. 전반기에만 82경기에 출장해 31개의 홈런을 때렸다. 독보적인 이 부문 단독선두다. 숫자로 계산하면 2.65경기 마다 1개의 홈런을 때린 것인데, 이를 올 시즌 전체로 확대해 계산하면 시즌끝까지 53홈런을 때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휴식일 등 여러 기타 여건을 고려해도 50홈런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구본능 총재(왼쪽)에게 트로피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최정.

자연스레 팬들의 관심은 최정의 MVP 동시석권으로 쏠린다.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며 후반기에도 홈런쇼를 벌인다면, 정규시즌 MVP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 KBO리그 역사상 한 선수가 같은 해 올스타 MVP와 정규시즌 MVP를 동시에 석권한 경우는 이제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달성시 리그 최초의 기록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직 더 남아있다. 소속팀 SK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한다면, MVP 3관왕(올스타·정규시즌·한국시리즈)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최정 자신은 대업을 달성 할 수 있는 조건에도 겸손함을 나타냈다. 올스타전이 끝난 직후 “베스트 12로 뽑혀 뛰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MVP까지 탈 줄 몰랐다. 다른 무엇보다 구단 최초로 올스타 MVP를 받았다는 것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시즌 MVP와 관련해서는 “단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성적은 열심히 하다보면 따라오는 것이다. 나 자신보다 팀을 위해 뛰겠다. 홈런보다 타점을 노리는 타자가 되겠다”고 대답했다.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최정의 ‘무심타법’이 그를 KBO리그 역사적 기록의 첫 주인공으로 이끌 수 있을지 궁금하다.

▶프로야구 관련기사 2·3·4면

대구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스타는 용감했고 팬덤은 더 강했다

‘군함도’ 송중기·소지섭 팬들 잇단 기부
반한류 위험에도 출연한 스타들 응원

배우 소지섭과 송중기가 건강한 팬덤을 이끌어내면서 긍정적인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다.

26일 영화 ‘군함도’(감독 류승완·제작 외유내강) 개봉을 앞둔 두 배우는 작품의 내용과 의미를 알리는 분주한 활동에 돌입했다. 동시에 이들의 팬들 역시 기부를 통해 배우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영화 티켓을 대량으로 구입해 스타를 응원하는 단순한 방식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나아가 팬덤의 지향점이 될만한 ‘좋은 예’로 주목받고 있다.

‘군함도’는 해방 직전인 1945년이 배경이다. 각기 다른 이유로 일본 남단 하시마로 강제 징용된 조선인 400여명의 이야기로, 일제의 폭압을 그리는 과정에서 강제징용과 더불어 조선인 위안부 문제도 다룬다.

이 같은 영화의 메시지에 힘을 보태기 위해 소지섭과 송중기의 팬들은 배우들의 촬영 시작을 기념해 지난해 말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각각 성금을 기부했다. 자신이 응원하는 스타가 참여하는 작품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동시에 그 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소지섭·송중기의 팬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봉을 앞두고 또 한 번 자발적 행동을 준비 중이다. 일제강점기에 자행된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송중기의 국내외 팬들은 ‘군함도’ 개봉에 맞춰 ‘팬연합’을 결성한 뒤 이달 초 1200만원을 모아 위안부 할머니들의 쉼터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전달했다. 동시에 시민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민족문제연구소에도 후원금 보냈다.

소지섭 팬클럽 역시 ‘군함도’의 의미에 공감하며 개봉일에 맞춰 기부를 계획 중이다. 앞서 모금액수와 방식, 기부처 추천을 결정하는 투표를 3차례에 걸쳐 진행한 팬들은 20일까지 기부처를 최종 확정하는 투표를 벌인다.

소지섭과 송중기 팬덤의 이 같은 ‘행동’에는 여러 어려움을 감수하고 출연을 결정한 배우들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하려는 의미가 있다. 일본을 주요 활동무대로 삼는 두 배우는 ‘군함도’ 출연을 계기로 ‘반한류’에 직면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본 우익세력은 ‘군함도’를 향해 불쾌한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시마(군함도)를 영화에서는 강제징용의 폭력이 자행된 곳이자 ‘지옥섬’으로 묘사한 것에 반감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배우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함도’를 통해 우리가 겪은 아픈 역사를 적극 알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뉴스디자인 | 김청조 기자

Cigna 라이나생명

개수의 부담을 줄인 보장! 든든한 보장금액! 합리적인 보험료로 더욱 새롭게!

라이나생명(무)THE건강한치아보험Ⅳ(프리미엄)

▪ 개수 제한 없이! 재료구분 없이! 때우는 충전치료 보장
• 금, 도재(세라믹), 테세라 개당 13만원, 레진 등 개당 5만원, 아말감 개당 1만원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씌우는 크라운 치료 보장
• 크라운치료 20만원 (유치, 영구치 각각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가입 후 91일째부터 정액 보장, 1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도 가입 2년 이후 개수 제한 없이 보장
• 임플란트 70만원, 브릿지 35만원 / 틀니 연 1회 70만원(특약 가입 시)
• 특약: 0세~55세 가입가능. 가입나이 56세~70세 고객은 주계약만 가입가능하며, 임플란트, 틀니는 50만원, 브릿지는 25만원 보장
• 임플란트, 브릿지: 영구치 발치 1개당, 최초 2년간 연 3개 한 / 틀니: 보철물당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영구치 발거 후 그 자리에 치료 시 정액 보장, 2년 이내 지급 사유 발생 시 50% 보장

▪ 꾸준히 받아야 하는 소액치료는 더욱 새롭게!
• 개수 제한 없는 신경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잇몸치료 / 스케일링 연간 1회 한 보장
• 가입 후 91일째부터 충치나 잇몸 치료 시 정액 보장
• 잇몸질환치료 및 스케일링 : 국민건강급여 항목 또는 의료급여항목에 한함

▪ 모든 보장 받아도 만기지급금 50만원 지급(만기 생존 시)
▪ 0세~70세까지 온가족 가입 가능(특약은 0세~55세까지 가입 가능)

[보험료 예시표]

40세 기준	남자	여자
주계약	31,000원	26,200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	4,480원	2,780원
합계	35,480원	28,980원

* 기준 : 가입금액 주계약 4,5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 2,000만원
보험기간 : 10년만기, 납입기간 :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기지급형), 특약(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주계약 0세~70세 / 특약 0세~55세 / 가입나이, 성별에 따라 보험료는 변경 가능

[해지환급금 예시표]

경과기간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425,760원	0원	0.0%
3년	1,277,280원	4,529원	0.3%
5년	2,128,800원	278,387원	13.0%
10년	4,257,600원	500,000원	11.7%

* 기준 : 40세 남자, 10년만기, 전기간 월납, 주계약(만기지급형), 특약(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가입금액 : 주계약 4,500만원, (무)보철치료보장특약Ⅲ(프리미엄) 2,000만원
*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위 보장 내용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원인으로 발생된 치료에 한해 100% 보장합니다 (각각의 면책/감액기간 약관 참조)

24시간 무료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하세요
080-059-9000

•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 • 본 상품은 10년 만기 비갱신형 상품으로 전 기간 월납, 주계약은 만기지급형,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며, 중도 해지 시 해지 해지환급금은 납입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 •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초과, 진단계약, 보험기간 1년 미만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청약철회 불가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불이행, 청약서에 자필 서명 또는 전자 서명을 아니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음 •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 거절,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람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음